

# 오정세 “순수한 상태 만나 세상 바라보는 시각 넓혔다”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삽화작가 ‘문상태’로 열연한 오정세가 최종회를 꼭 닫힌 해피엔딩으로 이끌어내며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9일 종영한 tvN 주말극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상태는 도희재(장영남 분)가 감춰놓은 ‘괜찮은 병원’의 변화를 복구시키 고자 했다.

상태는 문영(서예지 분)에게 “나비는 프시케, 프시케는 치유, 치유의 나비, 착한 나비, 오빠가 그려줄까?”라고 말하며 도희재가 그린 나비 그림 위에 자신의 나비를 덧칠해 아름다운 변화를 탄생시켰다.

나비 트라우마를 극복한 상태는 사람의 표정을 그려오라는 문영의 숙제까지 무사히 끝내며 한 뼉 더 성장했다.

이후 상태와 문영은 본격적으로 동화 삽화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둘의 첫 작품인 ‘진짜 진짜 얼굴을 찾아서’라는 그림책이 출간됐다.

삽화작가로 데뷔하게 된 상태는 동화책 초판을 손에 쥐자마자 엄마가 잠들어 있

‘사이코지만 괜찮아’서 자폐 스펙트럼 가진 ‘문상태’ 열연

“가장 순수하고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인생 캐릭터 갱신

는 수목장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노력의 결과물을 자랑하며 책 내용을 읽어주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겼다.

한편 상태는 병원 로비의 변화를 완성한 대가로 오지왕(김창완 분) 원장에게 캠핑 카 선물을 받았다.

드디어 상태와 강태(김수현 분), 문영의 오랜 바람이었던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 것. 셋은 캠핑카를 타고 목격지 없이 전국을 떠돌며 빛나는 추억을 쌓았다.

하지만 여행 중간, 상태가 일을 하기 위해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혀 강태와 문영을 놀라게 했다.

상태가 다른 동화 작가들로부터 협업 제의를 받았기 때문.

상태는 “나도 이제 필요한 사람이야”라며 강태에게 “넌 네 거, 난 내 거”라고 말

하며 두 형제가 비로소 각자의 인생을 찾게 됐음을 알렸다. 오정세는 “특별한 상태를 만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넓힐 수 있었다”며 “상태는 내가 연기한 인물 중에 가장 순수하고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여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런 상태가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울고 웃으며 응원해주는 모든 시청자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상태야, 강태야, 문영아 사랑해! 우리 행복하자!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너무나 멋진 스테파 분들, 연기자 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이었다”라고 애정 넘치는 종영 소감을 남겼다.

오정세는 전작 ‘동백꽃 필 무렵’, ‘스토브리그’에 이어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또 한 번 인생 캐릭터를 갱신하며 찬사를



받았다.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을, 때로는 상처로 얼룩진 이품을 보여주며 보는 이들을 울고 웃게 한 오정세는 마지막에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해 자신의 삶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박찬 감독까지 선사했

다. 한편 ‘사이코지만 괜찮아’ 최종회 시청률은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 플랫폼에서 가구 평균 7.3%, 최고 7.6%(닐슨코리아, 전국)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 하지원 “‘담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영화...깊이 공감할 것”

내달 개봉...성동일·김희원과 감동케미 선사 예정



영화 ‘담보’로 스크린에 돌아오는 배우 하지원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영화”라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담보’의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오는 9월 개봉.

10일 극 중 어른 ‘승이’ 역을 맡은 하지원의 스틸과 소감을 공개했다.

하지원은 처음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그는 “‘담보’를 보면서 관객들도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영화”라고 출연 결정 이유를 밝혔다.

과거 영화 ‘형사 Duelist’, ‘해운대’에서 하지원과 연을 맺었던 강대규 감독은 “하지원 배우는 언제나 관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안정된 연기를 한다”며 캐스팅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같은 신을 여러 번 촬영해도 항상 웃으면서 현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어줬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담보’는 인정사정없는 사채업자 ‘두석’과 그의 후배 ‘종배’가 떼인 돈을 받으러 갔다가 알뜰결에 9살 ‘승이’를 담보로 맡아 키우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성동일이 까칠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채업자 ‘두석’을, 김희원이 매사 구시렁거리며 속정 깊은 ‘종배’ 역을 맡았다.

어느날 이들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 사랑스러운 ‘9살 승이’는 아역 배우 박소이가, 보물로 잘 자란 ‘어른 승이’를 하지원이 연기한다.

100만 영화 ‘해운대’부터 드라마 ‘다모’, ‘발리에서 생긴 일’, ‘시크릿 가든’까지 다수의 히트작을 보유한 배우 하지원은 이번엔 ‘담보’로 스크린에 복귀한다.

그는 담보를 맡게 된 두 아저씨를 연기한 성동일, 김희원과 함께 밀도 높은 감정 연기와 케미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는 9월 개봉.



## 세정 첫 자작곡 ‘웨일’, 커밍순 티저 기습 공개

오는 17일 오후 6시 발매

그림 구구단 세정이 커밍순 티저를 기습 공개하며 음원 발매 소식을 알렸다.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10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오는 17일 발매 예정인 세정의 첫 디지털 싱글 커밍순 티저 영상과 함께 곡명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물소리와 함께 바닷속에서 있는 세정의 실루엣이 담겨 있다. 짧아진 헤어스타일과 바다를 둘러보는 모습이 궁금증을 더했다.

커밍순 티저와 함께 공개된 세정의 첫

싱글 앨범 곡명은 ‘웨일(Whale)’로, 세정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

지난 3월 첫 번째 미니 앨범 ‘화분’을 발매 후 자신만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힌 세정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며 아티스트로서의 존재감을 입증시켰다.

세정은 음악은 물론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음료, 게임, 뷰티 등 광고업계에 서도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활약하고 있다.

세정의 첫 디지털 싱글 ‘웨일(Whale)’은 오는 17일 오후 6시 발매된다.

## 트와이스, 첫 온라인 단독 콘서트 선보였다

세계 126개국서 지켜봐...디지털 신기술 적용에 ‘눈길’

그들 ‘트와이스’의 첫 온라인 단독 콘서트를 120여개국에서 지켜봤다.

10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가 전날 네이버 브이 라이브(V LIVE)를 통해 선보인 온택트 콘서트 ‘비온드 라이브 - 트와이스 : 월드 인 어 데이’는 세계 126개국 팬들과 함께했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월드투어 2019 트와이스라이즈’ 피날레 공연이 취소된 이후 처음 열린 콘서트다.

‘월드 인 어 데이’는 이런 아쉬움을 달여했다.

‘2019 트와이스라이즈’의 포문을 열었던 서울을 비롯해 방콕, 마닐라,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 멕시코시티, 뉴욕, 시카고, 쿠알라룸푸르, 일본 7개 도시 등이들이 방문했던 총 16개 지역을 무대 위에서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디지털 영역에서만 볼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돼 눈길을 끌었다.

‘에스 오어 에스’ 무대에서는 서로 다른 의상을 입은 18명의 트와이스가 함께

번에 등장했다.

MCC(Motion Control Camera) 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트와이스의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를 역동적으로 연출했다.

‘모어 앤드 모어’ 순서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자, 무대가 순식간에 나무와 꽃, 사과로 뒤덮이며 숲속으로 순간이동한 듯한 착각에 빠지게 했다.

또 디지털 인터랙션 기술을 통해 200명의 관객들과 동시에 화상 채팅을 진행했다.

트와이스 멤버들은 “‘트와이스’ 이름을 걸고 처음 진행하는 온라인 콘서트라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됐다. 그런데 오늘 공연을 통해 전 세계 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를 응원해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팬들 덕분에 더 큰 에너지를 얻었고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됐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트와이스는 지난 6월1일 발표한 ‘모어 앤드 모어(MORE & MORE)’의 영어 버전을 조만간 발매한다.

## 김희선X주원 신비함과 아련함...휴먼SF ‘앨리스’

오는 28일 첫방

‘앨리스’ 배우 김희선과 주원의 메인 포스터가 공개됐다.

오는 28일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앨리스’ (극본 김규원, 강철규, 김가영/연출 백수찬/제작 스튜디오S)는 죽은 엄마를 닮은 여자, 감정을 잃어버린 남자의 마법 같은 시간여행을 그린 휴먼SF다. 배우 김희선과 주원이 캐스팅 소식을 알리며, 2020년 하반기 기대작으로 떠올랐다.

제작진 측은 10일 ‘앨리스’를 이끌어 갈 두 주인공의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앨리스’ 메인포스터는 밤과 낮,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같은 세상에서 마주선 채 서로를 바라보는 주원과 김희선의 모습을 담고 있다. 두 사람의 깊은 눈빛, 신비로움과 아련함을 넘나드는 두 사람의 표정이 수많은 호기심을 남긴다.

극중 주원은 선전적 무감정증 형사 박진겸 역으로 분한다. 박진겸은 엄마가 죽은 뒤, 오직 엄마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살아왔다.

그런 박진겸 앞에 죽은 엄마와 닮은 여자 윤태이가 나타났다. 이제 박진겸은 눈앞에 여자가 자신의 엄마든, 엄마가 아니든 그녀를 지켜낼 것이다. 주원은 김희선을 바라보는 눈빛 하나에 극중 박진겸의 복잡한 감정을 담아냈다.

이어 김희선은 천재 물리학자 윤태이로 분한다. 윤태이는 갑자기 자신의 앞에 나타난 의문투성이 남자 박진겸에게 강렬한 호기심을 느낀다. 자신을 두고, 죽은 엄마와 닮았다는 남자, 윤태이는 이 남자와 함께 특별한 비밀을 풀어나간다.

포스터 속 ‘어느 세상에 있던 내가 지켜줄게’라는 카피는 드라마 ‘앨리스’가 지닌 신비로운 분위기에 방점을 찍는다.

